

5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소비심리 '햇볕'...북핵 회석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96.17포인트(2.37%) 상승한 8,473.49로 마감했고, S&P500 지수도 23.33포인트(2.63%) 올라선 910.33으로 장을 마쳤음. 나스닥 지수는 58.42포인트(3.45%) 급등한 1,759.43을 기록, 상승폭이 두드러졌음. 미 증시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와 이로 인한 아시아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했으나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미 증시는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음.
소비자 신뢰지수 '서프라이즈'...집값은 여전히 하강중	미국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달보다 15.7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을 상회했음. 이같은 지표는 지난해 9월 이후 기록한 최고치이며 2003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것임. 반면 미국 20개 대도시 집값 동향을 나타내는 3월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전년 대비 18.7% 하락했음. 이는 전달의 -18.63% 보다 낮고, 블룸버그 예상치 -18.4%보다도 악화된 것임.
유가 배럴당 62불 돌파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밖의 상승세를 보인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2달러를 넘어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78센트(1.3%) 상승한 62.45달러로 마감했음. 오전한때 배럴당 59달러선으로 떨어져 20일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으로 인한 수요 회복기대가 상승반전에 기여했음.
日 민간기관들, 일본 GDP 올해 3.9% 감소 전망	닛케이 신문은 최근 일본의 1분기 GDP 예비치 발표 이후 23개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정 GDP를 포함한 경제 전망을 취합했음. 민간 기관들이 내놓은 3.9% 감소 전망은 정부 자체 전망치인 3.3%보다 더 악화된 수치. 이들 기관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세가 더 느려지면서 세수감소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음.
獨 1분기 GDP 70년이 후 최대감소..바닥론 `술술	독일 통계국은 26일(현지시간) 1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3.8% 감소했다고 밝혔다. 4분기 연속 감소한 것. 한 해 전에 비해선 6.9% 줄었음. 투자 활동과 수출이 위축됐지만 민간 소비는 소폭 증가. 1분기 수출은 전 분기대비 9.7% 감소했으며, 수입은 5.4% 줄었음. 기계 및 장비 투자는 16.2% 급감했으며 가계 지출은 0.5% 증가. 정부 지출도 0.3% 늘었음.

제목	주요 내용
中 `앞으론 통화완화 뒤로는 통화긴축	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 부총재를 지낸 샤오강 중국은행(BOC) 회장은 전일 경제 전문지 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은 지난 4월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샤오 회장은 "통화정책 완화 기간은 막을 내렸다"며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만 GDP 증가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올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GDP가 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1분기부터 경기 침체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을 증거. 특히 한국은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작년 1분기 1.1%, 2분기 0.4%, 3분기 0.2%를 기록했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4분기 -5.1%까지 떨어졌으나 곧바로 올 1분기에 다시 0.1%로 올라서 만만치 않은 회복력을 과시했음.
12개 대기업 부실우려 판정	25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45개 주채무계열 대기업 그룹 가운데 12곳에 대해 부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음. 채권단은 이 가운데 9곳을 MOU 체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선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음. 3곳 가운데 A그룹과 B그룹은 자금난이 일시적 현상인 데다 매각할 만한 계열사도 없다는 각 그룹측의 입장을 수용, 일단 상반기 실적을 지켜본 후 하반기에 MOU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